



장수경찰서, 관광지·공원 일대 범죄예방진단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2일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수군 주요 관광지 및 공원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

장수경찰서는 4월 범죄예방진단 테마를 관광지 및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으로 정하고, 장수를 누리파고, 장계면 논개생가 등 장수군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범죄취약 요소를 점검했다.

이 날 범죄예방진단팀(CFO)은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방범용 CCTV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등·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추가설치 필요 여부를 점검했다.

장수경찰서는 최근 방법용 CCTV 추가 필요지역 16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장수군청과 협의해 4개소 설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수경찰서는 관광지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진단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소방서, 봄철 산행 시 산악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산행을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산행을 나서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산행 전 준비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등산화·스틱 등 안전장비 착용 철저 △산행 시 음주·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산악위험 표지판 및 등산로 안내 팻말 활용하기 등의 안전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에이치포레스트,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농업회사법인 (주)에이치포레스트(대표 박선자)가 2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선자 대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하여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기부의 소감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고명석 박사, 우수 박사학위논문상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지난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독창성·기술적 기여 인정

전북대학교 고명석 박사(기계공학과, 지도교수 임재혁)가 최근 여수에서 열린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상은 고명석 박사가 2023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신뢰성부문(회장 허남수)의 추천으로 결정됐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가상 열 센서 및 가상 변형률 센서를 위한 물리 정보 신경망 기반의 대리 모델'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고 박사는 소수의 실제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값을 예측하는 가상 센서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물리 정보 신경망 기반의 대리 모델을 제안했다.

이 대리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 중심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의 실제 센서 데이터만으로도 정확한 예측 가능해 센서의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함께 센서 설치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고 박사의 연구는 디지털 트윈,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며, 특히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분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고명석 박사는 탁월한 연구능력으로 석·박사 학위를 5년 6개월 만에 마쳤으며, 학위 기간 동안 주저자 6편(상위 10% 4편, 15% 1편, 50% 1편)과 공동저자 1편(상위 10% 1편)을 포함해 총 7편의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고명석 박사는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학문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해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문성 기자

임실경찰서, 4·10총선 빈틈없는 선거 치안 총력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가 오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빈틈없는 선거 치안에 총력을 다한다. 임실경찰서는 2일 경찰서 2층 소동방에서 최규운 서장을 주재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비안전활동 대책회의를 갖고,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빈틈없는 선거 치안을 확보하고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임실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공명정대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치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투표용지 보관소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등에 대한 112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표소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투표함 호송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 검토했다.

또한 단계적 비상근무로 가용경력을 집중 운영하는 한편 국회의원선거 경비안전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국회의원선거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



하여 안전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빈틈없는 경비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6월까지 관내 면 지역 5개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의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차량을 지원 신청해 진행하게 되었으며, 마을별 자원봉사자 2명과 함께 21kg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4대를 동시에 가동해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의 이불을 세탁해 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3월 26일 주천면 내용군 마을을 시작으로 상반기 5회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주 시민소통실장은 "이동빨래방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외계층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흥부농장 일손도움 봉사

남원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아영남성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아영면과 '흥부나눔정신' 실천을 위한 흥부농장 일손도움 봉사활동에 계속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소대 10여명이 아영면 오산마을 소재 농가에 대해 감자 재배작업을 위한 기초작업 및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하며 일손을 도왔으며, 참여한 대원들은 "고령화로 부족한 농촌 일손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오준록 의소대 대장은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지역의 파수꾼이자 봉사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저소득층 노인무료의치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내 치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치 신청자는 보건의료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한 후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의료원에서 의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5년 이내에 1회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8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835	필북지사 253-6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823	고창지사 563-8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